

기사에게 반말·동료 직원 폭행 의혹 농어촌기본소득 신청·접수 시작

무진장여객 장계 콜센터 내부 갈등 수면 위... 경찰 신고로 번진 직장 내 괴롭힘 논란

무진장여객 장계 콜센터에서 발생한 내부 갈등이 직장 내 괴롭힘과 폭행 의혹으로 확대돼 큰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번 사태는 특히 경영진들의 문제 인식이 부재한 것에 따른 것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시 특정 상담원 A씨는 본인 담당 업무가 아님에도 정산 문제를 개입해 버스가 기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정산금액이 맞지 않는다며 강하게 항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정산 내용을 재확인한 결과 실제로는 정산상 오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원래 담당자가 처리해야 할 사안이었는 데 A씨가 직접 기사에게 전화를 걸어 반말과 함께 고압적인 태도로 음대했다"며 "결과적으로 기사에게 책임을 물을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해당 기사는 당시 상황에 대해 상당한 모욕감과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당시 정산 문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동료 직원에 대한 폭행 의혹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산 내용이 맞는지 확인되자 A씨가 동료 직원에게 신체 접촉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으며, 이를 목격하거나 관련 내용을 들었던 직원들의 진술도 확보된 상태다.

일부 직원들은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사건 발생 이후 회사의 대응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사건은 4월 초 발생했지만 관리자가 해당 사실을 인지한 시점은 한 달 이상 지난 뒤였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이후 보고 과정에서도 상당 기간 결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내부 관계자는 "문제가 발생한 뒤에 즉각적인 조사와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결국 경찰 신고로 이어진 것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특정 직원으로

인해 장기간 조직 내 갈등이 반복돼 왔다는 이야기가 내부에서 꾸준히 나왔다"며 "일부 직원들의 퇴사 배경에도 관련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은 관계자들의 주장으로 향후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해당 사건은 경찰 신고가 접수된 상태로 알려졌으며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A씨는 본지가 제기한 폭행 의혹과 폭행 의혹, 업무 개입 논란 등에 대해 "대답할 수 없다"고 말하며 별도의 해명을 하지 않았다.

한편, 이와 관련해 무진장여객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조치와 범정부교육 실시 여부,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이행 여부, 관리·감독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진안군·무주군·장수군에 정보 공개를 청구한 상태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서 오늘부터 신청

진안군은 7월 13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사범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주민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은 지난 6월 정부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27년 12월까지 사업을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다.

기존 거주지는 7월 13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2026년 6월 11일 이후 전입한 신규 전입자는 전입신고 후 30일 이내 경과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서와 신분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개인정보 등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

지급 금액은 1인당 월 15만원이며, 진안군 통합복지카드인 '빠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신청 후 실거주 및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된 뒤 신청월의 다음달 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신규 전입자는 신청 후 90일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자격이 인정되면 신청월의 다음 달부터 소급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사용 지역을 읍·면 권역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면 지역 주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고 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부정수급과 부정유용 방지를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정기 점검을 실시하는 등 투명한 사업 운영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2026 태권도 봉사단 집합교육

태권도 봉사단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 나선다

무주군, 내달 12일까지 '민생 규제 집중 발굴 기간' 운영

무주군이 군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오는 8월 12일까지 '2026 무주군 민생 규제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무주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발굴 대상은 생활 불편과 민생경제,

지역·미래산업, 사회적 약자, 법령·제도 등 5개 분야의 각종 규제다. 다만 단순 민원이나 예산 및 세제 지원, 요금 감면 등 비규제 사항은 제외된다.

생활 불편 분야는 소방과 보건, 교통, 주택, 환경 등에서 발생하는 불편 사항을 대상으로 하며, 민생경제 분야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과 영업, 고용 관련 애로사항을 접수한다.

또 관광과 농수축산업, 농공단지 관련 규제와 AI, 드론 등 신산업 관련 규제 및 기업 투자 애로사항은 지역·미래산업 분야로 신청하면 된다.

사회적 약자 분야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다문화가족, 여성, 아동 등의 불편 사항을, 법령·제도 분야는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무주군 누리집에서 제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군은 규제 발굴 참여 확대를 위해 누리집 내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게시판도 상시 운영하고 있다.

/무주=손흥기 기자

최훈식 군수, 장수쿨벨리페스티벌 현장 안전점검 나서

최훈식 장수군수는 '제4회 장수쿨벨리페스티벌'을 앞두고 지난 9일 방화동자연휴양림 일원에서 축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점검에는 최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10여명 참석해 축제장 운영 준비 상황과 주변 환경을 살피고,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 대책 전반을 점검했다.

최 군수는 물놀이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에 안전요원을 적정



배치하고, 위험지역 예찰과 안전 안내를 강화하는 등 빈틈없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또한 본격적인 여름철 무더위에 대비해 그늘쉼터 운영과 폭염 대응물품 비치, 응급상황 대응체계 구축 등 폭염 대응 준비 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아울러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배수시설 관리와 시설물 안전 상태, 기상 상황별 대응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며 축제 기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했다.

한편 제4회 장수쿨벨리페스티벌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방화동 자연휴양림 일원에서 개최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태권도진흥재단, 8개국에 '태권도 봉사단' 파견

태권도진흥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 청년 케이(K)-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의 일환으로 '2026 태권도 봉사단'을 선발해 오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8개국에 파견한다.

올해 봉사단은 50명으로 예년 10명에서 20명 수준보다 많은 단원을 선발했다. 이들은 멕시코와 우즈베키스탄, 일본, 키르기스공화국, 스리랑카, 피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등 8개국에 나가 2주간 활동한다.

봉사단원들은 파견 국가에서 태권도

수련생과 경찰, 국가대표 선수 등을 대상으로 태권도 지도와 보급, 대사배 태권도 대회 지원,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대한민국 문화와 태권도 가치를 알릴 계획이다.

태권도진흥재단은 봉사단 해외 파견에 앞서 9일부터 11일까지 태권도원에서 태권도 지도법과 해외 안전관리, 파견 국가 연구 등의 집합 교육을 가지며 봉사단 활동에 필요한 태권도 지도 역량과 현지 이해, 안전 의식 등을 높였다.

/무주=손흥기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토마토 농가 스마트 LED 자가육묘 시스템 도입

진안군은 토마토 농가의 고질적인 바이러스 피해 재발을 막고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스마트 LED 자가육묘 시스템을 도입했다.

군은 도비 2억 8,000만 원을 투입해 관내 토마토 재배농가(8.6ha)를 대상으로 12개소에 스마트 LED 자가육묘 시스템 시설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2024년 관내 육묘장에서 공급된 모종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서 관내 농가들이 조기 종료 및 작목 전환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이 계기가 됐다. 이에 진안군은 육묘장 의존형 구조가 반복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 농가가 스스로 무병묘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나섰다.

스마트 LED 자가육묘 시스템은 식물 생장용 광원을 활용해 광량과 생육 환경을 정밀하게 관리하는 방식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전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지원사업 연중접수

장수군은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전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지원사업' 신청을 연중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업 생산·가공·유통·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해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장수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지원 분야는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되며, 운영자금은 종자·농약·비료 구입과 농산물 생산·유통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지난 7월부터는 장수군 청년농(18세 이상 45세 미만)을 대상으로 운영자금 지원을 확대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사전에 금융기관과 대출 상담을 진행한 뒤 사업계획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아동학대 신고전화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 국번없이 112
방문 :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